

본 인쇄물의 권한은 Fuji TV 를 비롯한 원저작권자에 있으며

아울러 본 인쇄물은 경희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13. Fuji TV: all rights reserved.

Please note that this publication is designed for the Capstone Project of
Kyung Hee University.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팀 ‘Publishers’

프로젝트 팀 ‘Publishers’ 는 일본어전공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일본어를 전공으로 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미디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영화에 주목하여 이러한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팀 ‘Publishers’ 는 현대에 와서 다양하게 의미분화가 이루어진 단어인 ‘Publish’ 에 주목하여 명명하였습니다. ‘인쇄하다’ 에서 분화되어 지금에서는 여러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반적인 의미까지 가지게 된 지금, 다시 순수한 출판의 형태로 돌아가 콘텐츠를 담아 내려는 시도입니다. 그 중 가장 순수한 출판물의 형태에 동적 영상인 영화를 결합한 형태는 전혀 새로운 시도가 아니지만 부족하나마 새로운 시도를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이자 국내에서도 일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굴지의 작품입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으로 선정한 것은 해당 작품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과 저희가 담아내려는 가치가 일치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대한 단절과 회복은 현대 사회인들에게 크나큰 문제로 다가온 시점이며, 단순하게는 재미있는 일본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에 여러 영화에 관련된 글귀와 저희의 생각을 담아 일종의 길라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덧붙여 QR코드는 현장감의 재현과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는 그 날의 기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호기심을 선사해드리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마음에 드셨길 바라겠습니다.

‘Publishers 김종영, 이선희, 손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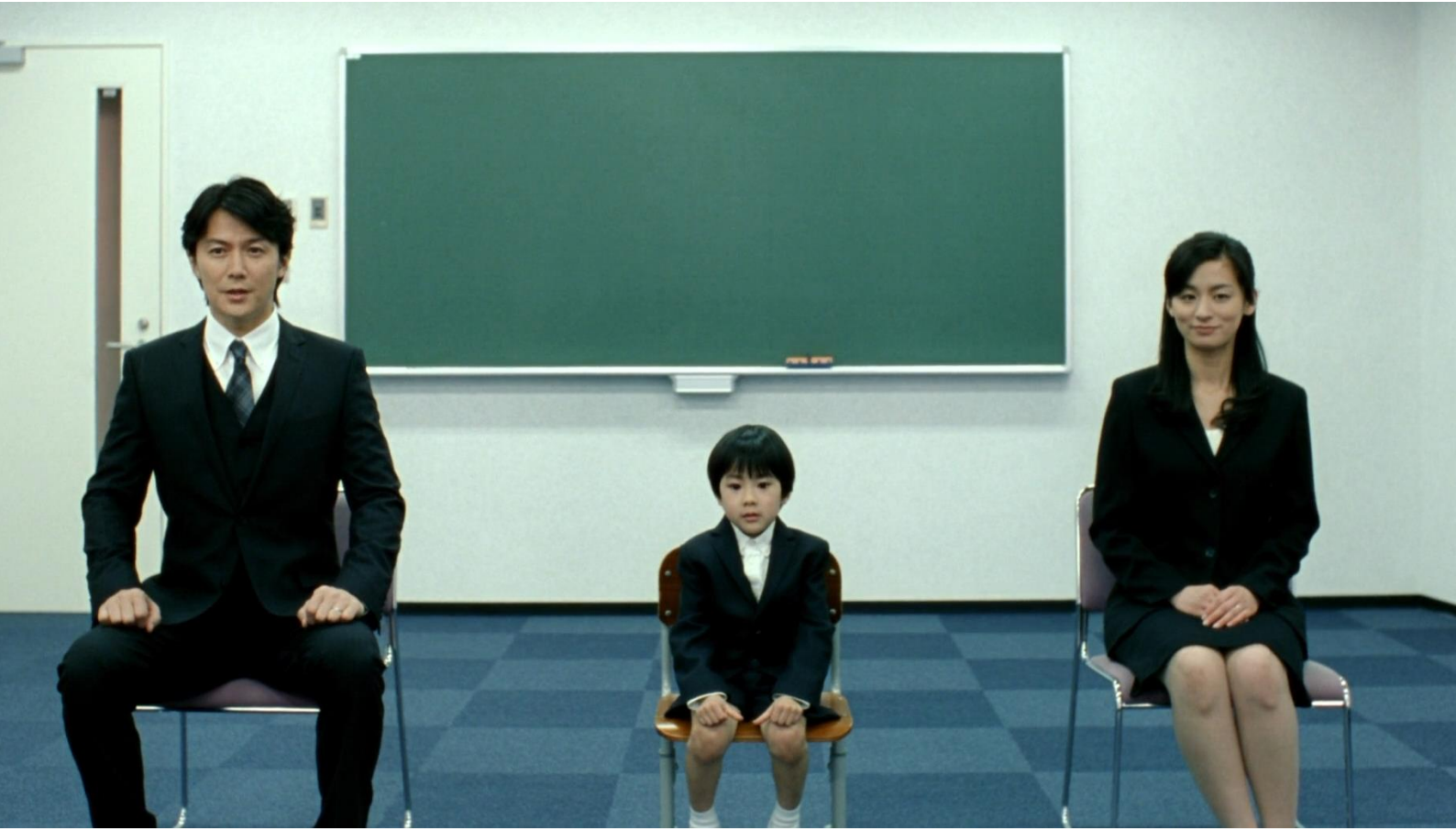
암전 (暗転)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는 암전을 단순한 장면

전환용의 페이드 아웃 효과로

다루지 않는다. 일종의 디테일을 선사하는 장치로

어떠한 형태의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료타는 아들 케이타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아들이 자신과 달리 승부욕이 없어서 섭섭하다고 말한다. 이는 이후 자신의 친자인 류세이를 데려왔을 때, 자신의 기대와 달리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실망하는 모습과 이어진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영화 내내 두 가족을 교차로 보여주며 ‘혈육의 닮음’과 ‘시간의 닮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경우 다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케이타의 친부 유다리와 닮아 있어 ‘혈육의 닮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료타의 친아들인 류세이의 경우 친아버지인 료타보다는 길러준 아버지 유다리를 닮아 낙천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시간의 닮음’을 의미한다.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케이타를 대하는 료타의 태도이다. 료타는 케이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방식은 류세이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이 역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다이’의 가족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요한 프리드리히 부르크뮐러의

25개의 연습곡중 1번

‘순진한 마음(La Candeur)’로 시작하는 오프닝 시퀀스는

굉장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한다.

오프닝 시퀀스에 이 후 대비되는 가족들의 보여주는 소재로 피아노를

사용하였고 부르크뮐러의 연습곡은 곧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접한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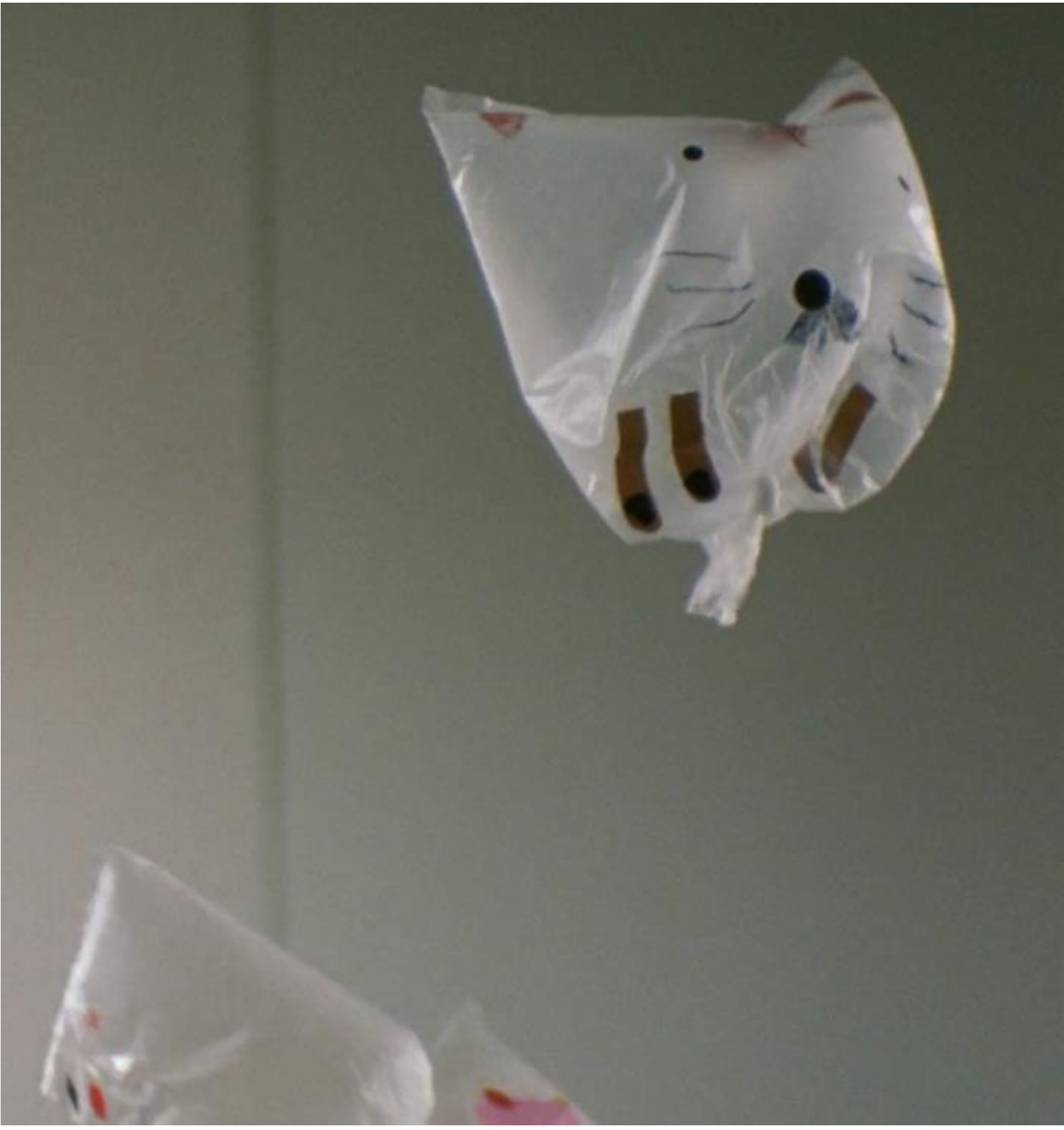
생각했을 때 매우 잘 짜여진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작품 내내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의 료타와는 달리 이 시퀀스에서의 케이타의

모습은 료타가 아닌 유다이를 닮은 것은 아닌가, 혈육의 닮음을 암시하고자

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료타는 케이타의 초등학교 면접이 있던 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출근한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료타는 게임을 하고 있던 케이타에게 피아노 연습을 마저 시킨다. 그에게 있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이다. 이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아들 케이타,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 류세이에게까지 강요된다. 료타에게 있어 자식은 성취의 일부분일 수 있다. 작품 속 사건의 발단이 되는 두 가정의 아이가 모두 아들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비록 현대에 와서 그러한 경향이 다소 약해졌다 한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가지는 기대감은 딸에게 가지는 것보다 커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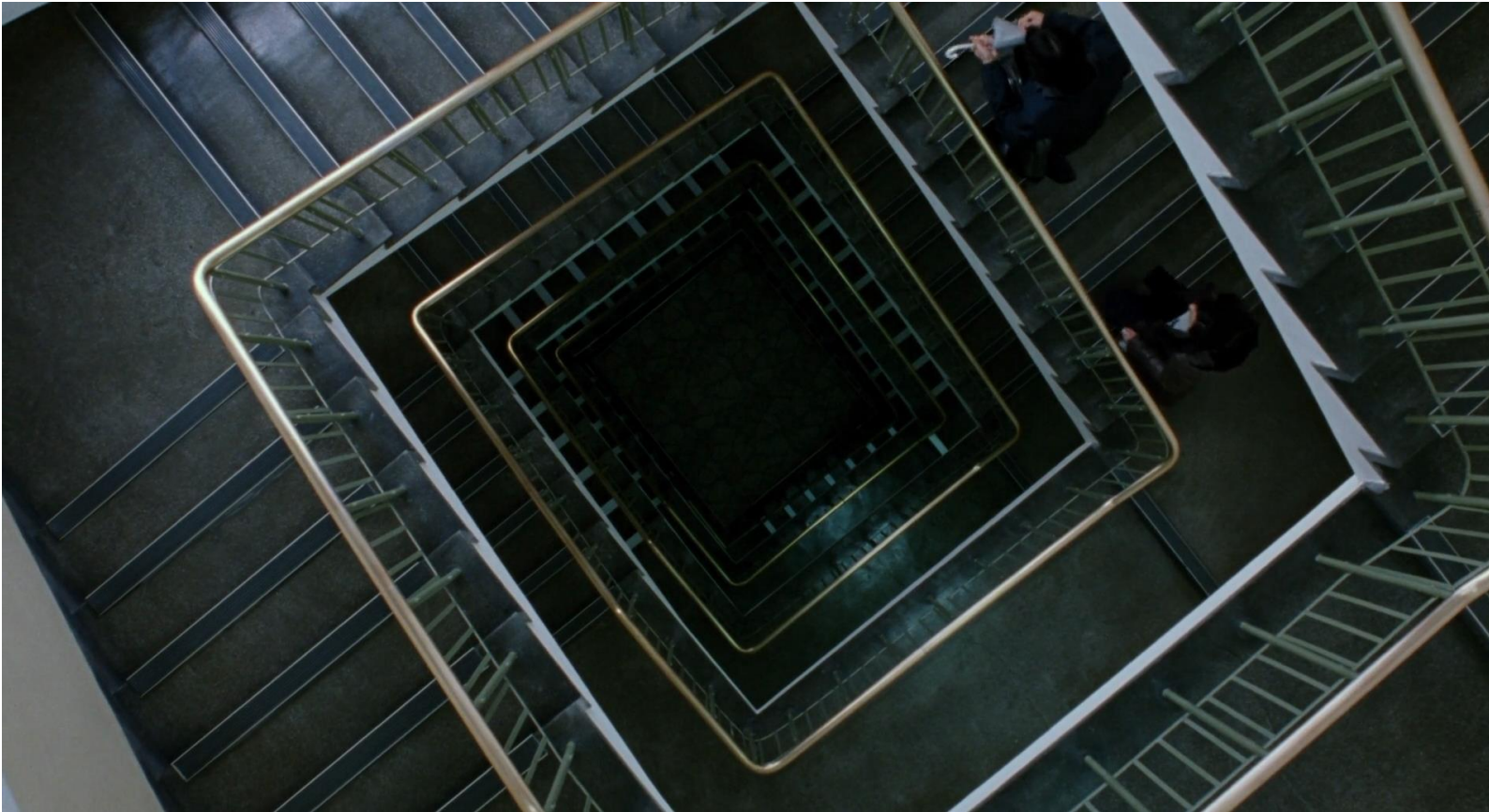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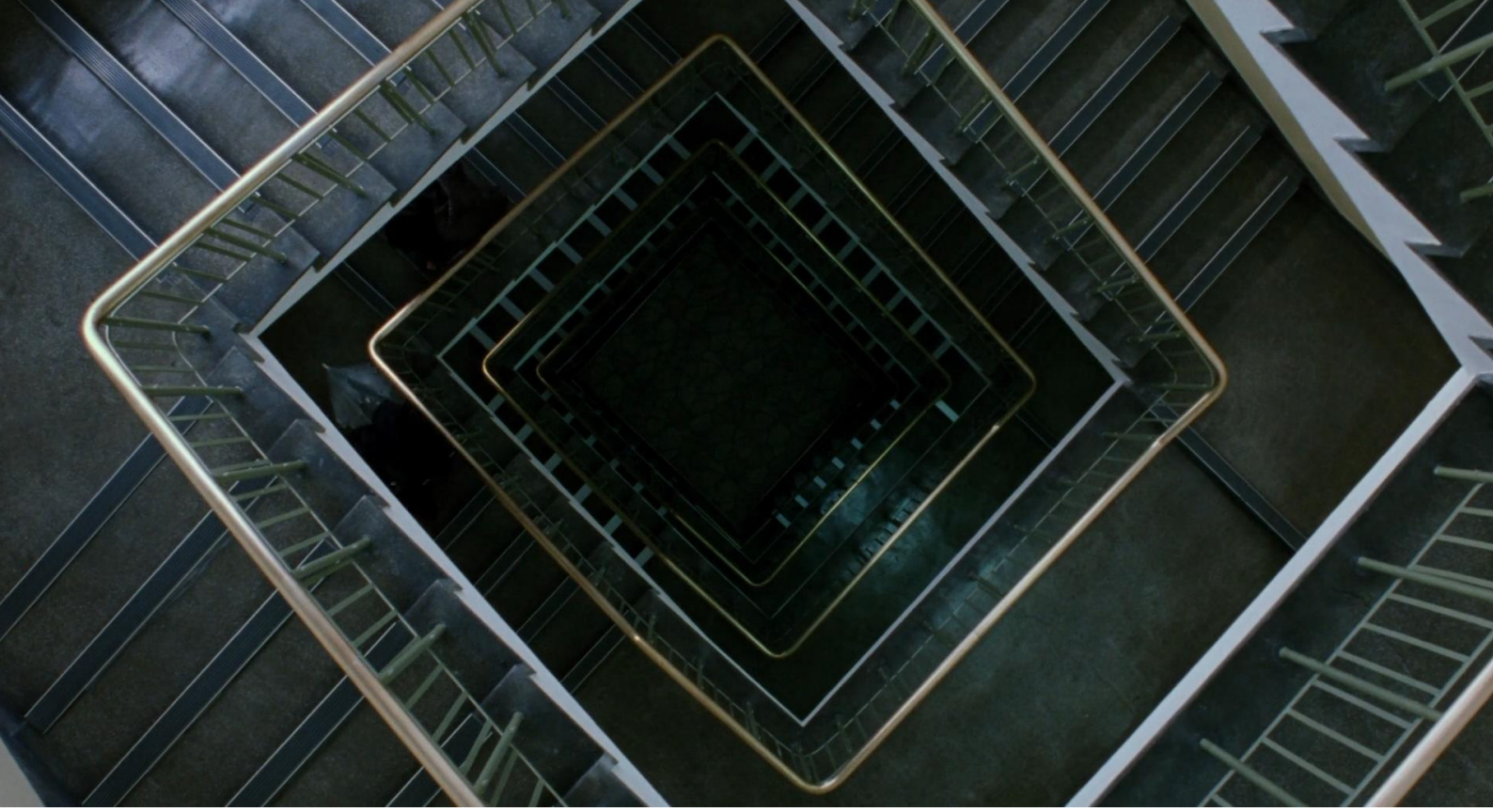
특히 이 영화 속의 주인공 료타라면 더욱 더 그럴 것이며, 이는 이후 료타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씬을 통해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클래식 음악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지금의 시퀀스에서 흐르는 골드베르크 변주곡 1번 아리아 또한 마찬가지이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으면서 케이타가 자신들의 친자인지 확인하려가는 오른쪽의 장면은 감정선을 더욱 깊게 하는 듯하다.

평화롭지만 어딘가가 우울하게 특히나 나선계단의 전 썬인 케이타와 검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에서의 강한 대비를 사용해 훌륭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

료타 역시 그런 거였어...

료타 그러니까...

良多 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か...

良多 だから...

.....

‘역시 그런 거였어...’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케이타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료타가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내뱉은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케이타가 승부욕이 없으며 뭘 해도
그럴 듯한 성취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역시나 나의 친아들이
아니였기 때문이었어.’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케이타의 부진함에
대해 료타에게 그럴 듯한 변명거리가 생긴 것이다.
이는 이후 료타와 그의 아내 미도리 에게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된다.





아키야마 어쨌든 이런 경우, 마지막에는 100% 양쪽 부모님이 ‘교환’
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입학전에...

秋山 とにかくこういうケースは最終的に 100%ご両親は『交換』という
選択肢を選びます。お子さんの将来を考えたらご決断は早い方が
良いと思います。出来れば小学校にあがる前に...



영화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두 가족의 대비를 보여준다. 그것이 재력이 되었던 가족의 육아방식이 되었던 분위기가 되었던...

처음으로 각자의 가족과 만나 헤어질 때 까지도 케이타와 류세이의 가족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료타와 미도리의 앞에 놓인 한 장의 사진.

미도리도 가방에서 케이타의 사진을 꺼내어 나란히 둔다. 수험용으로 사진관에서 찍었던 사진이다.

良多とみどりのまえに置かれる一枚の写真

みどりもバッグから慶多の写真を取り出して並べて置く。受験用に写真館で撮ったものだ。

...

류세이의 사진은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인화한 것.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류세이.

건강하게 햇빛에 탄 피부와 하얀이가 눈부시다. 케이타와는 정 반대다.

写真はケイタイのカメラで撮ったものを紙焼きにしたもの。プールで遊んでいる琉晴。健康的に目に焼けた肌と白い歯がまぶしい。慶多とは真逆だ。





료타는 잘 나가는 건축가이며,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것을 먹고, 아들에게 무엇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아버지이다. 반면 유다이는 수입이 변변치 않아 보이는 전파상을 운영하며, 료타의 집의 절반만 한 집에 살고 있다. 이것은 료타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단순히 저런 부모 아래에서보다는 자신들과 같은 부모의 아래서 풍부한 경제력을 통해 지원받으며 사는 것이 아이에게 있어 좋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이네 가족에 대한 모든 판단을 오로지 경제력만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대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두 가정의 경제 상황만 아니다. 료타를 제외한 다른 등장인물과 관객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아이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일 것이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다소 어색해 보이는 료타와 달리 유다이는 그것을 매우 능숙하게 해낸다.

어떤 것이 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것일지 그에 대한 판단은 관객의 몫이겠지만.



료타는 친아들 류세이와의 첫 저녁 식사에서 류세이가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교정해주려 한다.

만두를 먹는 유다이네 가족 사이 케이타 역시 젓가락질을 잘하지 못해 만두를 몇 번이나 놓친다. 하지만 유다이 부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료타는 ‘올바른’ 젓가락질 사용법에 대해 알려주려 한다.

하지만 이 ‘올바른’ 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료타에게 올바른 것일 뿐이다.

이는 료타가 젓가락질을 교정해주려는 모습을 바라보는 미도리의 착잡한 표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료타는 아이에게 있어 당연한 ‘서투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든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려 한다.

반대로 유다이와 그의 아내는 케이타가 만두를 몇 번이나 놓치는 것을 보고도 있는 그대로 놔둔다. 아이의 ‘서투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정의 식사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정의 상반된 훈육태도를 엿볼 수 있다. ‘무엇이 바르고 잘못되었고’ 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유다이의 훈육방식 쪽으로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물며 자식은 어떠한가?

유다이와 료타의 갈등 씬은 영화에 유의미한 변곡점을 의미한다.

료타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실로 단순한 자신의 사상이

다른이에게 통용되지 못함을 깨닫지 못한다.

단지, 길러온 케이타도 자신의 친자식인 류세이도 둘 다 얻으려는

단순한 욕심이다.

.....

료타 (가벼운 태도로) 그럼 둘 다 우리 집에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사람

유다이 뭐? 둘 다라니?

료타 케이타와 ... 류세이를요.

유다이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료타 네. 안됩니까?

良多 (軽い調子で) じゃあふたりともこっちに譲ってくれませんか?

3人

雄大 あ? ふたりって?

良多 慶多と... 瑠晴と...

雄大 それ、本気で...言ってる?

良多 ええ...ダメですか?



애초에 아이가 바뀌게 된 계기가 간호사의 어처구니 없는 질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간호사를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두 가족은 모두 낙담합니다.

끊임 없이 '대비' 를 통해 감독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 하려는 것 일까요?

이렇게 중요하고 또 엄숙한 때에 케이타, 류세이의 부모들은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서로의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이나 사진

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든 영화에서는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능청스런 표정의 유다이는 시종일관 낮이 나간 료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 일까요?

답은 아래에 감독의 인터뷰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부유한 집의 아버지가 상대편 가난한 가족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깔보았다가 점차 그가 무시했던 상대가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아버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점이다. 굳이 내 의도를 말하자면, 이런 깨달음이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처한 주인공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일어나게 하고 싶었다.

-2013년 씨네 21과의 인터뷰에서 ,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 裕和)





케이타의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한 료타에게 아버지는 중요한 것은
혈육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어머니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영화 속 남성 등장인물들은 혈육을 중시하는 데 반해,
여성 등장인물들은 기른 정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카리는 남자가 아이가 자신을 닮았는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기와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 있다.

.....

료스케 잘 들어라... 결국엔 피야. 사람도 말도 마찬가지로 피가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점점 그 아이는 너를 닮아갈 거다. 케이타는 반대로 점점
그 쪽 부모를 닮아가겠지... 빨리 아이들을 교환하고 두 번 다시
그 쪽 가족과는 만나지 말아야해.

료타 그렇게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에요.





노부코 아버지가 말을 저렇게 했지만 말이다. 피 같은 거 이어져 있지 않아도
함께 살다 보면 정도 들고 닳아 가기도 하고... 부부도 그렇잖아.
부모 자식도 그런 거 아닐까?

료타 ...

노부코 난 말이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키웠거든-

료타





미도리는 료타에게 이전에 아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냐고 묻는다. 료타는 ‘왜 그걸 몰랐을까’
라고 말했다고 말하지만, 미도리는 료타가 뱉은 말은 그게 아니라,
‘역시 그랬던 거군.’ 이였다고 반박한다. 이전에 차에서 료타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 미도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던 것이다.
미도리는 그동안 케이타가 자신처럼 우수하지 못했던 것이
이상하다고 여긴 거라며 료타의 말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

미도리 틀렸어. 그게 아니야. 당신은 이렇게 말했어. ‘역시 그런 거였어’
라고... ‘역시’ 래... ‘역시’라니 무슨 의미야? 당신은 케이타가
당신만큼 똑똑하지 않다는게 처음부터 믿겨지지 않았던 거잖아.
그 한마디만은...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어.

미どり ちがうわよ。そんなことじゃない。あなたはこう言ったの。
『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か』って…。『やっぱり』って
どういう意味？あなたは慶多があなたほど優秀じゃ
ないのが最初から信じられなかったんでしょ…あのひと言
だけは…私一生忘れない





이동진 평론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는 ‘아버지의 성장영화’ 라고 평한바 있다. 료타를 통해 가족은 역사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라는 설명이다.

마지막 바로 앞 씬 료타와 케이타를 서로 갈림길에서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에 료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케이타에게 다시 다가가는 모습은 이 영화에서 가장 주제를 잘 표현한 장면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다시 한번, 골드베르크 변주곡 1번 아리아가 흘러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된다. 영화는 절제된 씬과 쇼트로 그의 감성을 여감없이 보여준다.

특히나 피아노, 카메라와 같은 재재들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전달 하는 방식이나 화면의 구성을 통해 보이지 않는 디테일을 구사하는 방식은

관객들로 하여금 풍요롭고 날카로운 느낌이 들게 하는 그 만의 방식일 것이다.

구글 스토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부르크뮐러 25개의 연습곡 1. 순진한 마음 - 프리드리히 부르크뮐러

Friedrich Burgmüller-Burgmüller op.100 no. 1 - La Candeur



골드베르크 변주곡 1. 아리아 -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J. S. Bach - Goldberg Variations BWV 988 - 1. Aria

